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02-2110-4868), 김규성 팀장(2110-5060)
박순철 사무관(2110-5418)

#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 성황리에 폐막

## - 미래 글로벌 에너지 비전을 담은 "대구선언문" 채택 -

□ 지난 10.17일 막을 내린 WEC 대구총회는 정부와 민간의 고위급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대규모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에서의 국제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이라크,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에너지대국 장관뿐만 아니라, **로얄더치셸 회장, 아람코 총재, 지멘스 회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 등 에너지계 거물들이 모두 참석하여 **전세계 이목이 대구에 집중**

* (주요 참석인사) 로얄더치 셸 회장, GDF-SUEZ 회장, Rosneft 회장, 지멘스 회장, 아람코 총재, 동경전력사장, GE 발전부문 사장 등

□ 특히, 이번 대구총회에서는 WEC 총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정부와 WEC가 공동으로 "대구선언문"을 채택하여 글로벌 에너지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전문 별첨)

* 대구총회에서 개최된 에너지장관회의시(10.16) 윤상직 장관, 가도넥스 WEC 의장, 마리호세 차기 의장 등이 참석하여 대구선언문 서명식 진행(관련 사진 별도 배포)

○ 우선 총회 세션별로 진행된 글로벌 리더들의 에너지 삼중고에 대한 고민과 분야별 해결방안을 집약하였음

① 스마트그리드·ESS 등 에너지 시스템 개선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② 선진국과 후진국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선진국은 클린에너지를 확대하고 후진국은 자국 인프라 보급을 늘리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통해 **에너지 형평**을 달성하는 한편,

③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자는 것**

○ 동북아 지역의 높은 에너지 협력 잠재력이 전력·석유·가스 등의 수송망 연계를 통해 구체화되어 글로벌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 협력 증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협의체 구축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표명

○ 한편,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민관협력 정책사례를 발굴하기로 약속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동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

□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JVA(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투자계약), 한-핀란드 에너지기술 협력 MOU 체결, 에너지기술포럼 개최 등 총회를 계기로 모인 글로벌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 도출

○ 동북아에너지협력포럼, 자원순환정책포럼, 해상풍력에너지포럼 등 다양한 부문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운영

□ 러시아, 터키, 이란 등 주요 에너지 공급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는 새로운 자원 확보 방향 모색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측면 지원

○ 특히 러시아와는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및 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

별첨

1. 대구선언문(국문본, 영문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규성 팀장(☎ 010-8673-5790, 02-2110-50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구선언

-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에 대한 제언 -

2013년 10월 16일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인류의 발전은 에너지의 발전역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석탄을 통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석유를 통해 수송수단의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전력을 통해 생활패턴의 혁신적인 변화가 달성되었다.

우리는 1970년대 석유위기를 통해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을 처음으로 인식하였고, 1990년대 말 교토의정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첫 대응을 시도하였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석유가격 급등은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의 불안정성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구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를 통해 민관 분야 에너지 리더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21세기 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가운데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세계 에너지 지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함께 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에너지 삼중고로 정의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 환경 지속가능성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아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 에너지 안보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는 국내외 전통적 에너지원과 비전통 에너지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자를 지원하여 현재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부-산업계-시민사회 간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세계에너지총회는 열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과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탄소포집저장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에너지 시스템 도모의 중요성과 RD&D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에너지 형평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에너지 비전은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의 클린에너지 확대와 개도국 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한 형평성 확보임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선진국은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조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에너지 삼중고 균형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전지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 환경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사이의 합리적인 접점 모색은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안전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 갈등과 경쟁에서 신뢰와 협력의 시대로

우리는 동북아 지역이 상호간의 신뢰 증진을 토대로 한 전력망, 석유, 천연가스 수송망 연계를 통해 역내 및 잠재적인 세계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위해 금융 메커니즘 고안, 다자간 논의 채널 구상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에 동의하였다.

## 다음 단계

출범 100주년을 눈앞에 둔 세계 에너지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논의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제 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대구세계에너지총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은 향후 개최될 세계에너지총회와 세계에너지협의회 활동 및 회원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너지협의회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사항을 관련 활동 분야에서 추진하기 위해 제 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논의 사항과 세계에너지리더서밋 및 장관회의 논의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에너지협의회와 제22차 대구에너지총회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제22차 대구에너지총회의 논의 결과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 전달하기로 동의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클린에너지장관회의 개최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하기로 동의했으며 사무국의 동의하에 클린에너지

장관회의가 제시하는 민관협력(PPP) 향상 목표와 관련하여 공동의 협력활동 방안을 모색하는데 동의했다.

2. 세계에너지협의회는 2013년 APEC 경제 리더 선언문을 기반으로 “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 분야의 APEC 활동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무역 및 투자 규범에 대한 세계에너지협의회의 기여를 환영한다. 무역 및 투자 규범은 2015년까지 54개 종류의 “환경적” 재화에 대한 관세 상한 내용을 담고 있는 APEC 협정에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우리는 제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결과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해당 의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UN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의 목적과 2015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에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지원의 중요한 일환으로 제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일정 중 하루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확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SE4All 글로벌 트래킹 프레임워크 절차에 대한 협의회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하키는 데 있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다면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 분야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윤상직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피에르 가도닉스
세계에너지협의회 의장

마리-호세 나두
세계에너지협의회 차기 의장

# Daegu Declaration
# of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 - Proposal to Secure Tomorrow's Energy Today -

at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on 16 October 2013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has come hand in hand with that of energy. Coal sparked the industrial revolution, oil revolutionized transportation and electric power transformed everyday life.

The oil crises of the 1970s made us recognize for the first time the instability of the energy supply, and with the Kyoto Protocol in the late 1990s we took the first step towards aggressive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Moreover, the oil price surge of the mid-2000s raised awareness of not only price but also quantity instability.

During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held in Daegu, Korea, energy leader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acknowledged the need for change amid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the fast-growing 21st century world. The world energy map is changing; we need to change to keep pace with new developments. As we search for solutions, we need to address the triple challenge of Energy Security, Energy Equ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identified by the World Energy Council as the Energy Trilemma.

In response to this, participa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iving to reach the following objectives:



**Energy Security**

In the interest of establishing a stable energy supply system that can respond to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expansion, we recognize the need to find ways to effectively use conventional and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 from domestic and external sources. In addition, we recognize that stronger communication among government, industry and civil society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a safe and reliable energy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ability of energy providers to meet current and future demand. The congres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keeping all energy options open and of incorporating leading innovative systems such as smart grid, energy storage systems and CC(U)S and the need for further investment in RD&D.

**Energy Equity**

We agree that the vision of global energy a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growth can be achieved by expanding clean energy in advanced nations through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by ensuring equity through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distribu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is end, developing and advanced nations need to urgently cooperate more actively in adjusting policy,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building networks. Such efforts to balance the Energy Trilemma are sure to contribute to the long-term maintenance of global peace and secur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inding an acceptable compromise betwee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conomic growth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we face. We recognize that a wise response to this issue will take into account of the need to achiev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ith the right energy mix for each nation. Additionally, in order to address concerns and build trust in all sources of energy, we recognize the need to go beyond domestic

efforts and devise measures to ensure good governance and safe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Conflict and Competition to Trust and Cooperation**

We recognize that Northeast Asia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 resolving regional and potentially global energy problems by connecting power grids and transportation networks for oil and natural gas on the basis of enhanced mutual trust. In addition, we agreed to continuously seek measures to develop concrete actions to address the Energy Trilemma such as designing financial mechanisms and forming multi-lateral discussion channels.

**The Next Steps**

As the World Energy Council moves to the decade of its 100th anniversary the organization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role as an important forum for discussion to promote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We recognize the success of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a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delivery of this mission. We will ensure that the issues discussed at the World Energy Congress in Daegu, Korea continue to be developed through future World Energy Congresses and through the work of the World Energy Council and its network of national member committee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World Energy Council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agreed to build on the proceedings of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Daegu and the topics discussed in the World Energy Leaders' Summit and the Ministerial Roundtable to push forward with the following items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activity.

1.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cognizes that the World Energy Council and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have set out meaningful vision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global energy system.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Clean Energy Ministerial (CEM), which will be hosted in Korea in 2014, we agree to inform the CEM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gress. The World Energy Council has agreed to suppor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the staging of this event in seeking ways, with the agreement of the CEM secretariat, to develop joint working activat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CEM's stated goal of enhanc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2. Building on the 2013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the World Energy Council has agreed to continue to support the work of APEC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and has welcomed the World Energy Council's contribution on Rules of Trade and Investment which has already helped to inform the APEC agreement on tariff caps for 54 types of 'environmental' goods by 2015. We will continue to build on the outcomes of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to further this agenda.

3. We agree to support the objectives of United Nation Secretary General's 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 initiative and the inclusion of energy in the post-2015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key part of this support has been the dedication of an entire day for deliberations at the 22nd World Energy Congress focused on Securing a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Energy Council also reiterated its commitment to the SE4All Global Tracking Framework process.

In conclusion, we agreed that, if governments and industr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et a course for the future,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coordinate government policies, and enhance sustainability,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role that the energy sector play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response.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Government of Korea

Pierre Gadonneix,

Chairman of the World Energy Council

Marie-Josée Nadeau,

Incoming Chair of the World Energy Council